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성코칭 의사소통과 이에 대한 자녀의 지각 차이 및 부적응문제*

A Study on Perceptual Discrepancy of Emotional Coaching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순천대학교 대학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석사 김서영**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성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Suncheon National Univ
Master Kim, Seo-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
Professor Kim, Sunghy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emotional coaching communic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mental health of youth by investigating the perceptual discrepancy of emotional coaching between a mother and her child related to the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Two hundre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s and their 200 mothers living in Suncheon were purposefully sampl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rogram SPSSVIN 2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perception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eir children's in emotional coaching communications.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 재구성한 것이며 2015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김서영(ksy7217@hanmail.net)

*** 교신저자: 김성희 (ksh@sunchon.ac.kr)

Second,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emotional coaching communication. There were more pairs with discrepancies of perception of emotional coaching than pairs with corresponding perceptions. Third, the pairs with corresponding perceptions of emotional coaching showed fewer maladjustment problems. According to the mothers' descriptions, a sneering child appeared to have the worst effect with respect to maladjustment.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 on emotional coaching for mothers should be developed and increased to prevent maladjustment problem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청소년 (adolescent), 감정코칭(emotional coach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부적응문제(maladjustment)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학생을 둔 부모는 “북한군도 두려워 한다는 중 2병”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만큼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일보, 2015). 부적응문제를 일으키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 실패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부적응문제를 일으킨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므로 주변인과 갈등을 야기하고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밖으로 표출하게 된다(조수철과 남민, 1994).

이 시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개별화의 과정을 겪는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이전 시기의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와 거리를 두며 친밀한 정서에서 분화를 경험해 간다(Hock와 그의 동료들,

2001). 부모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부모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탈리 르미살(2011)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아직 두뇌의 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판단력과 통제력이 미숙한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의 행동, 사고방식, 인격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신연희, 2001). 청소년기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지지는 필요하고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는 아직 미숙한 청소년에게 계속적으로 조언과 훈육을 제공하려하지만 자녀는 부모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려 한다.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까지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이 증가하는 반면에 부모는 10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Guilamo-Ramos 와 그의 동료들, 2006; Noller와 그의 동료들, 1994). 이러한 부모 자녀 간 지각의 불일치는 갈등을 초래하여 청소년을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부모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지 않게 하므로 자녀에게 부적응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2014년 중고등학교의 11%인 10명 중 1명이 가출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의 불일치를 조사하고 부적응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나 자녀를 분리하여 어느 한 쪽의 지각만을 조사함으로써 불일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서윤정, 2010; 서숙경과 김은경, 2012; 서주연과 정남운, 2011; 이요나, 2007 등). 박진희(2014)의 연구에서 부모와 모, 자녀를 쌍으로 조사한 것 이외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성애와 조벽(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많은 부적응문제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때 스스로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의 부적응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지지적이고 일방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게 하며 이를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감정코칭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부모-자녀 간의 개방성, 빈도 등 형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김순미, 2013; 서주연과 정남운, 2011; 이명순과 김중운, 2014; 이지현과 최정임, 2011 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부적응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은 많지만(김현주와 손정희, 2009; 서윤정, 2010; 이영경, 2008 등), 의사소통의 내용으로서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자녀의 부적응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공감적 의사소통의 실태와 지각의 불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공감적 의사소통의 불일치가 행동 및 정서의 부적응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로 첫째, 자녀와 모가 지각한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실태와 지각 차이는 어떠한지 조사하고 둘째, 모-자녀 쌍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셋째,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의 부적응문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넷째, 모의 어떤 대화에서 유형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모-자녀 간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소통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둔 가족의 관계 개선 및 청소년 부적응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관한 개념 및 선행연구

1)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개념

코칭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상호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서 가치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 정의된다(김진수, 2012; 최정혜, 2013). 도미향과 정은미(2012)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하게 하여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코칭은 각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삶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 학습, 상담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정코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성애와 조벽(2012)은 부모의 감정코칭은 자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해를 하되 다양하게 표현되는 감정들 중 폭력으로 표현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두고 그 한계 안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감정코칭은 자녀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어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문제 상황을 보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끌어 주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존 가트맨(John Gottman)과 남은영(2007)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축소전환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축소한 후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며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형으로 자녀의 부정적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격려한다. 축소전환형 부모는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불편해하는데 자녀의 화냄 표현이나 슬픔, 놀람,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고 빨리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억압형 부모는 축소전환형이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달래주거나 관심을 돌려서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달리 아이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꾸짖거나 혼계해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한다. 부정적 감정이 자녀의 성격을 나쁘게 하거나 나약하게 할 지 모른다고 우려해서 빨리 교정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자녀에겐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방관형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의 방식인 폭력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허용해서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한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형이다. 감정은 모두 분출하게 하면서도 문제해결 능력은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 방관형 부모가 갖는 문제점이다. 이에 비해 감정코치형 부모는 감정은 좋

고 나쁜 게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다 받아주지만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지도하며 적절한 제한을 두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들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므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유형이라 볼 수 있다.

최성애와 조벽(2012)은 감정코칭을 하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녀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1단계, 부정적 감정이 보일 때를 친밀감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2단계,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3단계,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명료화 하도록 도와주는 4단계,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5단계, 이 다섯 단계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정서에 지지의 반응을 보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다루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2)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호 교환적인 과정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최초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는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발달해간다(이지미, 2010).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나 인성, 사회나 학교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서운정(2010)의 조사에서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부적응 행동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과 최정임(2011)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2013)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순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우울경향이 줄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로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CI)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있다. 즉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

김지은(2013)의 경우 이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 또는 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는 자기 및 타인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는 이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전략을 잘 사용하고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는 회피, 지배,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김순미(2013)의 연구에서는 부와 모, 자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가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는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화의 원활함, 만족감에 초점을 두고 대화의 효과가 긍정적인가 역기능적인가를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이명순과 김종운, 2014)가 있었지만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공감이라기보다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과 같은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여 오지 않았다.

또한 최성애와 조벽(2012)이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감정코칭 즉 공감적 의사소통이

청소년문제행동 해결에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녀 의사소통에서 감정에 대한 수용과 억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류성진(2007)이 어머니의 자녀의 감정에 대한 인식, 자녀의 감정에 대한 수용, 그리고 감정에 대처할 때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침의 측면에서 감정지도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감정코칭에 관한 연구로 서숙경과 김은경(2012)이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이 있고 박지은(2012)이 감정코칭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있다.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의사소통 기술, 태도, 가치관에 따라 메시지가 조직되고 해석되므로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지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나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지각 차이를 연구한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박진희(2014)가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가족사정척도(FAD)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CS)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성애와 조벽(2012)이 주장하는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녀와의 지각 차이를 조사하며 이러한 감정코칭이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부적응문제에 관한 개념 및 선행 연구

1) 청소년 부적응문제의 개념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로 인한 부적응, 성적우선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의 증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문제는 문제행동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과 거짓말을 하거나 잘 싸우는 등의 외적 문제행동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1)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유희/풍속형, 권위/반항형, 폭력/절도형, 도피형으로 나누어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를 하였다.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에서도 청소년문제를 문제행동으로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 척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Achenbach's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YSR의 한국판 K-YSR(유천기, 2013에서 재인용)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로 분류하고 있다.

김현주와 손정희(2009)는 이를 이용하여 문제행동과 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유천기(2013) 역시 Achenbach(1991)를 바탕으로 하여 내재화된 문제로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을 조사하였고 외현화된 문제로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문제를 정신건강 차원에서 연구하기도 한다. 최인재와 김혜인(2012)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을 조사하였고 긍정적 요인으로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를 조사하였다.

김진주와 조규관(2012)은 청소년 문제를 스트레스, 우울, 자살로 국한하여 연구하였는데 스트레스의 경우 문제행동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분리하여 스트레스를 문제

행동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안혜원, 2007).

이동훈(2010)은 부적응행동을 학교부적응행동과 내재화정서문제, 학업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문제행동, 회피적 또래관계 문제행동, 공격적 또래관계 문제행동으로 연구하였다. 조봉환과 임경희(2006)는 부적응 행동을 주의산만, 집중력 부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행동이나 불안·우울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행동,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요구·지시를 거부하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행동, 부적응행동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신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사용하거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행동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행동이라는 개념이 학교라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조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준거로 하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정신적인 문제 및 행동적인 측면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부적응문제라 정의하고 이의 실태와 감정코칭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청소년 부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09)의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잘 울거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계층의 문제행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거나 잘 싸우는, 공격성, 비행 등의 외적인 문제행동은 농어촌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지역에 따른 차이의 격차가 커졌다.

최인재와 그의 동료들(2012)은 전국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

제행동을 부적응적 심리요인과 행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우울, 불안, 자살생각, 스트레스의 부적응적 심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게임중독, 비행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 점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연(2013)은 Achenbach's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YSR의 한국판 K-YSR(유천기, 2013에서 재인용)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족의 적응력 및 결속력과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K-YSR를 이용하여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유천기, 2013)에서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주(2009)는 문제행동을 유혹/풍속형, 권위/반항형, 폭력/절도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찬주(2009) 연구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부정적 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로 이영경(2008), 김현주와 손정희(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영경(2008)은 문제행동을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을 바탕으로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지각 일치도를 조사하였고 지각의 차이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지각한 것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일치도는 일치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각일치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현주와 손정희(2009)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 중 불안요소와 관계 있었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공격요소와 상관이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일치한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문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분석

조사대상자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3개 중학교의 2~3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250쌍을 임의표집하였다. 조사는 2015년 4월 1일 ~ 4월 15일까지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학생용 200부, 어머니용 20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군집표집(Cluster),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1) 감정코칭 의사소통

최성애와 조벽(2012)의 감정코치의 내용을 척도로 만들기 위해 김순미(2013), 이영경(2008) 등이 연구에 이용한 Barenz와 Olse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CI)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2013)의 10대 부모-자녀와의 상호간 의사소통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31문항을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많아질수록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체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4였고, 하위영역인 공감적 의사소통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3, 축소방관억압적 의사소통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5였다.

2) 청소년의 부적응문제

조주연(2013)과 유천기(2013), 최인재와 그의 동료들(2012), 안혜원(2007)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행동 및 부적응 문제를 수정·보완하여 27문항을 구성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이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전체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5였고 하위영역인 행동부적응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4, 정서부적응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3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감정코칭 의사소통과 자녀의 부적응문제 실태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실태를 보면 자녀가 지각한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은 평균 2.98이었으나 모 자신이 지각한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은 평균 3.07이었다 <표 1>. 자녀가 지각한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은 거의 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모 자신은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가끔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모의 높은 지각과 자녀의 낮은 지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17, p=0.031$).

이러한 결과는 Barnes와 Olson(1985)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에 비해 가족의 의사소통을 더 좋게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차이가 있었던 Guilamo-Ramos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와 Hartos와 Power(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부모는 10대 자녀들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더 빈번히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Noller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표 1> 자녀와 모가 지각한 감정코칭 의사소통과 자녀의 부적응 문제 실태

(N=200)

구분	요인		문항수	M	S.D	t	p
감정 코칭 의사 소통	공감적	자녀의 지각	20	2.90	0.53	-1.38	0.171
		모의 지각	20	2.96	0.44		
	축소억압 방관적	자녀의 지각	11	3.19	0.55	-1.38	0.168
		모의 지각	11	3.26	0.46		
	합	자녀의 지각	31	2.98	0.50	-2.17*	0.031
		모의 지각	31	3.07	0.39		
부적응 문제	행동부적응		12	1.70	0.86	-13.56***	0.000
	정서부적응		15	2.39	0.82		
	합		27	2.09	0.76		

* $p<0.05$, *** $p<0.001$

하위 영역을 보면 공감적 의사소통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모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평균 2.90, 모가 지각하는 공감적 의사소통은 평균 2.96으로 자녀의 모에 대한 지각과 모 자신의 지각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8, p=0.171$). 자녀는 모가 거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어머니 역시 그렇게 지각하였다.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모의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은 평균 3.19였고 모가 지각하는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은 3.26이었다. 자녀의 모에 대한 지각과 모 자신의 지각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8, p=0.168$). 자녀는 어머니가 가끔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 역시 가끔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위 영역 간에는 자녀와 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에 있어 공감적 의사소통보다는 축소전환방관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스스로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을 하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의사소통보다는 자녀의 감정을 축소전환방관하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녀들은 어머니가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어머니 간에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차은정(1993)과 강민희(2007)의 연구결과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차은정(1993)의 연구에서 부모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한 반면에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폐쇄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여 부모가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자녀의 부적응문제 실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2.09로 부적응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하위 영역에서 정서부적응이 행동부적응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므로($t=13.56, p=0.000$). 청소년 문제는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정서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감정코칭 의사소통 지각에 따른 모-자녀 쌍의 유형 분류

자녀와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지각 정도에 따라 모-자녀 쌍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중심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모-자녀의 쌍은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군집 1은 자녀지각이 높고 모의 지각이 낮은 집단, 군집 2는 자녀 지각은 낮으나 모

<표 2> 감정코칭 의사소통 지각에 따른 모-자녀 쌍 유형 분류

(N=200)

군집평균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p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낮음	자녀지각 낮음 모지각 높음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높음		
N(%)	43(21.5)	69(34.5)	88(44.0)	-	-
자녀의 지각	3.00	2.43	3.38	217.10***	0.000
모의 지각	2.56	3.16	3.25	88.99***	0.000

***p < .001

의 지각이 높은 집단, 군집 3은 자녀 지각과 모의 지각도 높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집단은 자녀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17.10, p=0.000$), 모의 지각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88.99, p=0.000$).

군집 1은 43쌍, 군집 2는 69쌍, 일치하는 쌍은 88쌍으로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대해 모와 자녀가 일치하는 가족은 전체의 44%로 불일치하는 가족 보다 적었다. 불일치하는 가족은 자녀보다 모의 지각이 더 높은 가족이 34.5%, 자녀의 지각이 모보다 더 높은 가족은 21.5%로 모의 지각이 자녀 지각보다 높은 가족이 더 많았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감정을 수용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가족이 적어도 1/3 정도 되었다.

어떤 모-자녀 쌍의 유형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자녀 쌍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류성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감정지도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학년, 종교, 모의 취업, 가족형태, 성적, 모의 학력,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유형에 차이가 없었다. 모-자녀 쌍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는 특정 가정환경이나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조건과 관련이 없다기보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세 유형은 존재하며 하위집단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모-자녀 쌍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N=200)

유형(N)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낮은 집단 N(%)	자녀지각 낮음 모지각 높은집단 N(%)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높은집단 N(%)	χ^2	p
성별	여성(70)	16(22.9)	25(35.7)	29(41.4)	0.30	0.861
	남성(130)	27(20.8)	44(33.8)	59(45.4)		
학년	중2(111)	24(21.6)	39(35.1)	48(43.2)	0.06	0.969
	중3(89)	19(21.3)	30(33.7)	40(44.9)		
종교	무교(83)	20(24.1)	23(27.7)	40(48.2)	2.91	0.234
	유교(117)	23(19.7)	46(39.3)	48(41.0)		
모취업	비취업(68)	13(19.1)	30(44.1)	25(36.8)	4.26	0.119
	취업(132)	30(22.7)	39(29.5)	63(47.7)		
가족 형태	다양한가족(19)	4(21.1)	9(47.7)	6(31.6)	1.75	0.418
	친부모(181)	39(21.5)	60(33.1)	82(45.3)		
		(N)	(N)	(N)	F	p
성적	M	2.88(43)	2.88(69)	2.99(88)	0.35	0.703
	S.D	0.96	0.95	0.77		
모학력	M	3.53(43)	3.07(69)	3.30(88)	2.29	0.104
	S.D	1.05	1.24	1.05		
경제 수준	M	2.93(43)	2.72(69)	2.77(88)	1.06	0.347
	S.D	0.74	0.84	0.66		

* $p < 0.5$, ** $p < .01$, *** $p < .001$ a>b>c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3. 유형에 따른 자녀의 부적응문제의 차이

모-자녀 쌍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부적응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84, p=0.000$). 지각이 일치하지 않는 군집 2 (자녀 지각은 낮으나 모 지각은 높은 집단)의 부적응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군집 1(자녀 지각은 높으나 모 지각은 낮은 집단)의 부적응문제가 높았으며 지각이 일치하는 군집 3(자녀 지각이 높고 모 지각도 높은 집단)의 부적응문제가 가장 낮았다 <표 4>. 부적응문제 하위 영역인 행동부적응과 정서부적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의사소통 교육을 할 때 어떤 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5>. 거의 모든 대화에서 군집 1의 어머니는 군집 2와 군집 3의 어머니보다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지각은 높으나 모의 지각은 낮은 군집 1의 어머니는 다른 집단의 어머니보다 대체로 공감적 의사소통보다 축소 억압방관적 의사소통을 하였다. 자녀와 일치도가 높고 감정코칭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군집 3의

<표 4> 모-자녀 쌍 유형에 따른 부적응문제의 차이

(N=200)

유형(N)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낮은 집단 N(%)	자녀지각 낮음 모지각 높은 집단 N(%)	자녀지각 높음 모지각 높은 집단 N(%)	χ^2	p
행동 부적응	M	1.73(43) b	2.20(69) a	1.29(88) c	27.87***	0.000
	S.D	0.90	0.97	0.43		
정서 부적응	M	2.46(43) b	2.82(69) a	2.02(88) c	22.10***	0.000
	S.D	0.78	0.83	0.66		
부적응문제합	M	2.13(43) b	2.55(69) a	1.70(88) c	31.84***	0.000
	S.D	0.75	0.79	0.49		

* $p < 0.5$, ** $p < .01$, *** $p < .001$ a>b>c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응 영역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같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연구(김현주와 손정희, 2009)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의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의 일치가 중요하고 감정코칭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유형에 따른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차이와 대화내용의 중요도

어머니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감정상태 알아차리기가 높았고 감정상태에 어울리는 말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처럼 자녀와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일치도가 높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감정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집단 3유형의 어머니는 자녀의 부적응문제를 가장 적게 유발하고 집단 1의 어머니는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화방식에 의해 이런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

〈표 5〉 모-자녀 쌍 유형별 모가 지각한 대화의 차이

요인	항목	군집1	군집2	군집3	F	p
		(N=43)	(N=69)	(N=88)		
		M(S.D)	M(S.D)	M(S.D)		
공감적 의사 소통	얼굴표정 살피기	2.67(0.99)a	3.35(0.66)b	3.24(0.82)b	10.01	0.000
	감정상태 알아채기	2.44(0.77)a	3.07(0.60)b	3.38(0.63)c	29.54	0.000
	감정과약하기	2.37(0.90)a	3.01(0.72)b	3.10(0.64)b	15.41	0.000
	감정상태 질문하기	2.09(0.81)a	3.03(0.75)b	3.06(0.73)b	26.84	0.000
	기분 나쁠 때 위로하기	2.37(0.79)a	3.19(0.67)b	3.26(0.69)b	25.24	0.000
	좌절감 이해하기	3.07(0.73)a	3.28(0.68)b	3.64(0.84)b	15.86	0.000
	화나 짜증 받아주기	2.02(0.81)a	2.46(0.80)b	2.40(0.81)b	4.38	0.014
	언제나 내편 되어주기	2.67(0.89)a	3.01(0.76)b	2.98(0.82)b	2.64	0.074
	걱정거리 덜어주기	2.33(0.75)a	3.19(0.63)b	3.34(0.66)b	35.08	0.000
	어떤 감정도 내보이기	2.09(0.87)a	2.45(0.93)b	2.47(0.98)b	2.55	0.081
	원하는 것 뭐든 말하기	2.40(0.82)a	3.00(0.64)b	2.93(0.88)b	8.76	0.000
	걱정거리 뭐든 말하기	2.77(0.92)a	3.36(0.62)b	3.39(0.63)b	12.78	0.000
	기분나쁜일 뭐든 말하기	2.65(0.75)a	3.22(0.62)b	3.31(0.67)b	14.67	0.000
	잘못한 일 뭐든 말하기	2.81(0.85)a	3.16(0.72)b	3.27(0.64)b	5.98	0.003
	잘못된 행동에 마음 먼저 이해하기	3.14(0.73)a	2.40(0.76)b	2.93(0.63)b	13.16	0.000
	잘못된 행동에 스스로 해결책 찾게 도와주기	3.46(0.79)a	2.23(0.92)b	2.90(0.62)b	13.22	0.000
	친근한 감정 표현하기	2.72(0.96)a	3.48(0.68)b	3.38(0.72)b	14.56	0.000
	나를 대할 때 감정 조절하기	2.40(1.00)a	3.19(0.69)b	3.26(0.63)b	21.24	0.000
	내 말을 충분히 들어주기 ⁶	2.53(0.91)a	3.30(0.63)b	3.30(0.71)b	18.40	0.000
	어릴적 경험으로 나를 이해하기	2.72(0.96)a	3.07(0.73)b	3.19(0.71)b	5.38	0.005
축소 억압 방관적 의사 소통	감정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2.84(0.81)a	3.51(0.70)b	3.67(0.56)b	22.92	0.000
	감정 자주 무시	2.84(0.84)a	3.52(0.68)b	3.69(0.53)b	24.92	0.000
	감정상태 잘 비웃기	2.91(0.92)a	3.71(0.52)b	3.83(0.41)b	37.66	0.000
	감정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말 잘한다	2.42(0.79)a	3.04(0.83)b	3.42(0.67)c	25.41	0.000
	맘에 들지않을 때 모욕감 주는 말 하기	3.07(0.77)a	2.56(1.01)b	3.32(0.72)b	19.43	0.000
	좋지 않은 기분 무시하고 관심 다른곳으로 돌리기	2.72(0.83)a	2.86(0.86)b	3.03(0.75)b	2.38	0.095
	울음, 짜증에 그까짓 일로 그한다고 못하게 하기	2.56(1.08)a	3.01(0.85)b	3.05(0.88)b	4.53	0.012
	폭언.폭력 내버려두기	3.37(0.93)a	3.74(0.66)b	3.84(0.43)b	7.86	0.001
	잘못된 행동 못 본척하기	2.86(0.72)a	3.09(1.06)b	3.43(0.76)b	7.67	0.001
	잘못된 행동에 의견문지 않고 해결책 찾기	2.78(0.83)a	2.37(0.93)b	2.96(0.78)b	8.82	0.000
	강한 감정 폭발시켜 두렵게 만들기	2.60(1.05)a	3.38(0.79)b	3.47(0.68)b	17.74	0.000

a>b>c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축소억압방관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낮을수록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낮은 것을 의미함.

순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모-자녀 쌍의 유형 판별에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된 변수는 총 5개로 나타났다. 감정상태 비웃기가 가장 중요도가 컸고 걱정거리 덜어주기, 감정상태 알아주기, 강한 감정 폭발시켜 두렵게 만들기, 감정상태 질문하기의 순으로 공헌도가 높았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부적응문제를 가장 적게 유발하면서 자녀의 감정을 잘 수용하는 군집 3과 같은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상태를 비웃는 것을 삼가고 걱정거리를 덜어주며 감정 상태를 알아채고 강한 감정을 폭발시켜 자녀를 두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며 자주 자녀의 감정 상태를 질문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판별변수	함수 1
감정상태 비웃기	0.52
감정상태 알아채기	0.36
감정상태 질문하기	0.28
걱정거리 덜어주기	0.39
강한 감정 폭발시켜 두렵게 만들기	0.3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학생 자녀와 부모 간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자녀 쌍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고 자녀가 모에 대해 지각하는 감정코칭 의사소통과 모 자신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감정코칭 의사소통의 차이가 자녀의 부적응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남 동부지역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였고 200쌍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와 감정

코칭 의사소통을 가끔 한다고 지각한 반면 그들의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들과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지각이 자녀의 지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들의 부적응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부적응을 행동부적응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모와 자녀를 한 쌍으로 감정코칭 의사소통 지각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개의 집단 즉, 자녀의 지각은 높으나 모의 지각은 낮은 집단, 자녀의 지각은 낮으나 모의 지각이 높은 집단, 자녀의 지각과 모의 지각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일치하는 가족은 전체의 44%, 불일치하는 가족은 56%로 불일치하는 가족이 더 많았다. 불일치하는 가족은 자녀보다 모의 지각이 더 높은 가족이 34.5%, 자녀의 지각이 모보다 더 높은 가족이 21.5%로 모의 지각이 자녀 지각보다 높은 가족이 더 많았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감정코칭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가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세 개의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의 부적응문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녀의 지각은 낮으나 모의 지각이 높은 지각 불일치 집단에서 부적응행동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유형의 어머니는 감정코칭 의사소통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지각과 모의 지각이 모두 높으면서 일치하는 집단에서 자녀의 부적응행동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녀의 부적응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의 학생이나 가정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감력을 높이면서 모가 자녀의 지각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일치도를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형에 따라 자녀의 부적응문제와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도가 높은 어머니의 대화 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감정상태 비웃기가 가장 중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걱정거리 덜어주기, 감정상태 알아주기, 강한 감정 폭발시켜 두렵게 만들기, 감정상태 질문하기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적응문제를 가장 적게 유발하는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 상태를 비웃는 것을 삼가고 걱정거리를 덜어주며 감정 상태를 알아채고 강한 감정을 폭발시켜 자녀를 두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며 자주 자녀의 감정 상태를 질문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자녀 간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부적응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대해 이를 잘 수용하지 못하며 이를 자녀에게 전달할 때 자신은 자녀의 마음을 수용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불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적응문제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보다 더 높게 감정코칭을 한다고 여기고 불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감정코칭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교육은 주로 나-전달법과 같은 자기표현, 경청 등 기술적인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심

화 확대하여 자녀와의 공감력을 높이는 감정코칭 의사소통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가족 간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부의 감정코칭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직원교육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교육 또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버지 대상의 교육에서도 감정코칭 의사소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기 자녀와의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적응 청소년의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교내의 Wee클래스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 시 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예비부모로서 감정코칭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 가정 과목에 이러한 내용을 편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학생 2~3학년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특성 및 연령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지각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부모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민희 (2007). 부모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순미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지은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또래 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진수 (2012).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기업관리자의 코칭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진주·조규판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251-270.
 - 6) 김현주·손정희 (2009). 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차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2, 315-342.
 - 7) 김호정·허진 (2008). 한글 SPSS WIN 14.0. 서울 : 삼영사.
 - 8) 나탈리 르비살 (Natalie Levisalles) 지음. 배영란 옮김 (2011). 청소년, 코끼리에 맞서다. 서울: 한울림.
 - 9) 도미향·정은미 (2012). 대학에서의 코칭학의 교육과정안. 2012년도 한국코칭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0) 류성진 (2007).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행위와 어머니의 감정지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그리고 어머니의 감정지도에 대한 지각과 자녀의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분석. 언론과학연구, 7(3), 116-150.
 - 11) 박진희 (2014).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이 연구: 가족사정척도(FAD)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SC)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103-124.
 - 12) 박지은 (2012). 감정코칭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보건복지부 (2009).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14) 서숙경·김은경 (2012).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6(1), 95-109.
 - 15) 서운정 (2010).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서주연·정남운 (2011).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 신뢰가 자녀와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신연희 (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107-132.
 - 18) 안혜원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3). [동상이몽] 10대 자녀 vs 10대부모: 상호간 의사소통 및 양육방식 관련 인식평가. 서울 : embraintrendm onitor.
 - 20) 유천기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친구관계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정서지능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동훈 (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1), 185-205.
 - 22) 이명순·김중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 23) 이영경 (2008).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이용숙·김영화·최상근 (1988).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5) 이요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지미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지현·최정임 (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이찬주 (2009).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조봉환·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30) 조수철·남민 (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3(6), 1273-1283.
- 31) 조주연 (2013).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존 가트맨(John Gattman)·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 감정코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 33) 차은정 (1993). 청소년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최성애·조벽 (2012). 청소년 감정코칭: 교사와 부모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 해냄출판사.
- 35) 최인재·김혜인 (2012).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6) 최인재·모상현·이선영·김혜인·이재연 (2012).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7) 최정혜 (2013). 코칭철학을 적용한 유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증등교육연구, 25, 199-214.
- 38) 한국일보 (2015.05.29.). “중2병 퇴치법? 자녀와 놀이부터 해보세요”. <http://www.hankookilbo.com>
- 3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0)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41) Barend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42) Barend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344-345.
- 43) Guilamno-Ramos, V., Jaccard, J., Dittus, P. & Bouris, A. M.(2006). Parental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ccessibility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229-1246.
- 44) Hartos, J. L., & Power, T. G. (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41-450.
- 45) Hock, E., Eberly, M., Bartle-Haring, S., Ellwanger, P. & Widaman, K. F. (2001). Separation anxiety in parents of adolescents: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scal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1), 284-298.

- 46) Noller, P., Seth-Smith, M, Bouna, R. & Schweitzer, R. (1994).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2), 101-114.

- 투 고 일 : 2016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6년 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4월 2일